“대통령 퇴진하라”… 스님도 규탄 나섰다

조계종 스님 2,684명 12월 1일 시국선언

대규모 스님, 정부 규탄 ‘이례적’
종단 스님 및 학인 스님들도 동참
朴 대통령 즉각 사퇴 등 촉구
재가단체들도 ‘1만 서명운동’ 계획



조계종 승려 2,684명은 12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조계종 승려 2,682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에 집단적 목소리를 냈다. 그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단체가 촛불시위에 참여하거나 시국선언을 하는 등 개별 행동은 해왔으나, 2,684명에 육박하는 조계종 스님들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승려 2,684명은 12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조계종 승려 2,684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비롯한 비구 · 비구니 스님들과 중앙승가대 · 동국대 등 학인 스님들이 동참했다.

조계종 승려 2,684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수행자 양심에 근거해 호소한다”며 “부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요구에 귀 기울여 역사 앞에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또 스님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삿된 일들의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고, 법과 원칙에 의해 바로 잡히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국정농단사태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과오가 숨김없이 공개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박 대통령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하란 국민들의 뜻을 준엄히 받아들여야한다”고 견책했다.

특히 스님들은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회피는 국정 최고운영자로서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며 “대통령직에 연연하는 초라한 모습서 국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여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며 “깊은 반성으로 대대적으로 혁신해야한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 뜻에 따라 탄핵절차를 추진하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님들은 “국정공백 상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이번 사태가 한국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히 변화시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주권이 보장되며 민주주의가 오롯이 유지 발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11월 25일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가 ‘나라를 걱정하는 전국비구니회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대통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고,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박 대통령은 ‘하야’란 국민의 엄중한 요구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결단해야할 때”라며 “박 대통령은 진심으로 마음을 비워 냉철하고 지혜롭게 스스로 결단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불교계는 재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참여를 해왔을 뿐 스님들은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집단적 행동을 자제해왔다.

한편 스님들의 적극적 움직임에 따라 불교계 재가단체들도 범불교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바른불교재가모임 · 불교환경연대 · 신대승네트워크 등 불교계 재가단체는 12월 6일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수호 범불교시국회의’를 출범하고, 1만 불자 시국성명 운동에 나선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문불전 번역 전문가 첫 박사 나온다

동국대 불교융합학과 내년 박사학위 5명 탄생

조계종 교육원 지원 등 도움
12월 13일, 연구성과 연찬회

한문불전 번역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학과장 김종욱)에서 첫 박사학위자가 배출된다.

석 · 박사 통합과정인 한국불교융합학과는 2012년 3월 개설됐으며, 학기제로 운영되는 불교한문아카데미도 함께 만들어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도 한문불전 번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협약을 맺고 학비 전액과 장학연구비를 승가교육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입학한 스님 30명(일반학생 15명 포함 총 45명)은 한문원전 해독능력에 기초한 한글 · 영어 고전번역 능력을 배양했다. 이들 중 5명의 스님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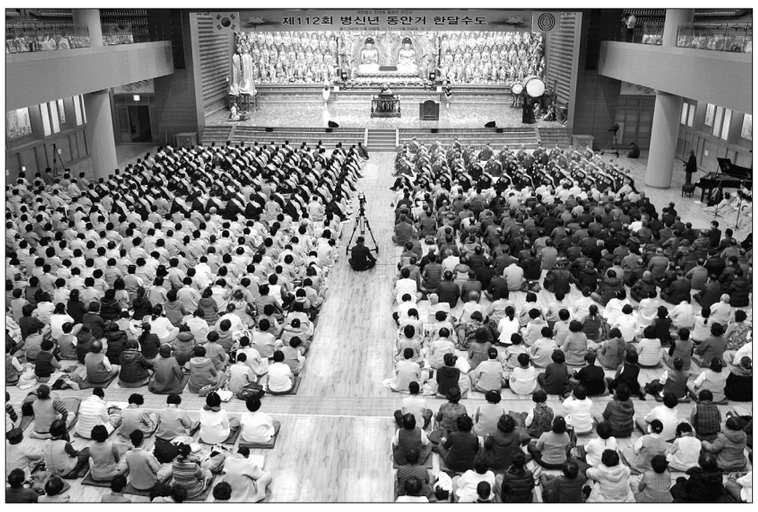
이에 따라 조계종 교육원과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는 12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장의에서 연찬회를 열고 박사학위를 받는 스님들의 연구 성과를 알린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정영사 혜원의 대승의장 팔실의 연구와 역주(신경 스님)’ △‘정영사 혜원의 대승기신론의소 연구와 역주-대승의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대진 스님)’ △‘요대 선연의 화엄경담현결택 연구와 역주(지현 스님)’ △‘조선 후기 화엄현담 사기(私記)의 왕복서 연구와 역주(선암 스님)’ △‘조선 후기 묵암 최눌의 묵암집 연구와 영역 역주(현서 스님)’ 등이 발표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종단의 불전 번역 전문가를 배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종욱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장도 “지금은 스님들 위주지만 내년에는 재가자도 있다. 많은 불교인재를 배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주경야선’ 전통 잇는 천태종 재가불자들 천태종은 11월 29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2회 병신년 재가불자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구인사 동안거에 동참한 1,000여 불자들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염송하는 관음정진에 매진하게 된다. 김주일 기자

월정사, 갈등하는 젊은 이에게 행복 길 제시

20일 ‘청년마음출가학교’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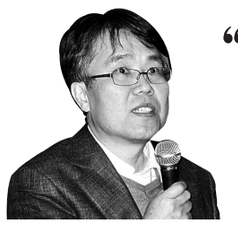
고학력에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도 직장을 찾기 어려운 우리 시대, 청년들을 위한 행복의 길은 없을까. 힘들고 지친 청춘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한 청년마음출가학교가 열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7박 8일 동안 만 17세에서 29세까지의 남녀 각 30명을 대상으로 ‘2016 청년마음출가학교’를 실시한다.

이번 청년마음출가학교에는 지리산 실상사 회주이자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을 비롯해 소설가 조정래, 오대산 상원사 주지 인광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출가학교 관계자는 “나를 세워서 행복을 찾는 시대를 넘어선 가치에 대한 모색”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원 문화유산지구 관리 위해 ‘불사관리위원회’ 설치해야”

이병인 교수, 11월 30일 ‘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토론회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올바른 이용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과거 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에선 건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됐던 반면, 문화재 보전과 불사에 필요한 건물의 신 · 증축, 사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행위가 가능한 곳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는 11월 30일 ‘2016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오대산 월정사 등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사찰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종단 특별 기구를 창설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한단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종교유산과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유산지역”이라며 “기본적으로 유산자원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교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 핵심지역 외 완충지역에서 종교적 다양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자연과 조화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찰은 ‘사찰 내 불사관리위원회 또는 교구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종단은 ‘불사관리위원회 설치 또는 환경위원회 업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원칙의 하나로 불사(佛事)시 △무분별한 불사 지양할 것 △창건주와 중창주의 조성원리 및 안목 유지할 것 △주위 자연과 조화롭게 유지할 것 등을 내세웠다.

특히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지정기준에 대해선 “일정한 거리만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등 한계가 있다. 각 사찰특성에 맞는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경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현재 유산지구만으로 한정하는 건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규정된다.

이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특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한다”며 “비록 사찰이 사유지더라도 공원지역이란 기본적 특성을 바탕으로, 탐방객 및 사찰 관련인들의 탐방서비스와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승가 토론교육 어떻게?

교육원, 1일 사찰 교수 스님 대상 연찬회

조계종 승가교육 중 토론 교육에 대한 교습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교육기관 교수 스님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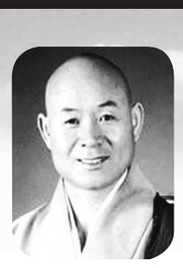
이날 연찬회에서는 교육부장 진각 스님이 교육원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김슬옹 인하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에게 ‘토론식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 수업이 승가교육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늘 자리를 통해 승가교육 내 토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